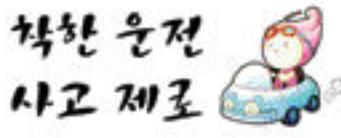


## 사회

# “나 까지는…” 꼬리물기 이제 그만

**⑭ 황색등에 멈추세요**

3일 오전 8시께 광주시 서구 운천4거리 교통신호가 직진과 좌회전 동시에 신호로 바뀌었지만 차량은 좀처럼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신호등은 어느새 주황색 불로 바뀌었다.

이미 교차로에는 선행 차량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 하지만 이 때 2~3대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며 선행 차량의 후미에 바짝 붙어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도로는 온통 차량들로 뒤엉켰다.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가운데에서 음渣달싹 못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차로 한복판이 이내 ‘주차장’으로 변했다. 다른 방향에서 출발을 대기하던 차량들도 밭이 둑인 채 신호 한 번에 간신히 차량 3대가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에서 운전자들의 ‘꼬리 물기’가 교통 체증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경찰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상습 교통체증 지역에 서의 ‘꼬리 물기’는 매일 일상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꼬리 물기’를 한 차량은 신호가 바뀌어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 정체는 물론, 여러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광주의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선 선행 차량들의 흐름을 충분히 지켜본

**출퇴근길 체증 주범****운천 4거리 등 심해****경찰 집중 단속키로**

뒤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3일 광주지방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말까지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를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1만479명에 이른다.

이 중 신호등이 푸른색일 때 교차로에 진입했으나 제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961명의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됐다.

이와 달리 신호가 주황색으로 변하거나 빛은색으로 바뀌었어도 선행 차량의 꼬리를 문 채 교차로에 진입한 나머지 9천518명의 운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광주일보 공동 캠페인

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위반)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됐다.

언제 교차로에 진입했느냐에 따라 꼬리 물기에 따른 처벌이 다르지만 똑같이 교통 체증을 심화시킨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광주경찰은 광주시 서구 운천4거리와 한국방송 4거리, 문흥지구 문흥4거리 등을 상습적인 ‘꼬리 물기’지역으로 꼽고 있다. 차량 정체로 인해 주른색 신호 안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할 게 뻔한데도 무리하게 교차로를 진입하는 ‘꼬리 물기’가 유독 이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출근길에 허기는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꼬리 물기’를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간다”면서 “그러나 ‘꼬리 물기’는 오히려 다른 방향의 차량 소통에도 지장을 주고 전체적으로는 모든 운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의 ‘꼬리 물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습적인 교통 체증 교차로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출퇴근길 운전자 등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후원 :

## 공군 에어쇼 ‘블랙이글스’

### 강원도 원주로 원대 복귀

**광주시민들 “설상하지만 소음 줄여 다행”**

공군이 자랑하는 특수비행대인 ‘블랙이글스’가 광주의 제1전투비행단에서 강원도 원주의 제3전투비행단으로 이동 배치된다.

3일 공군 제1전비에 따르면 에어쇼 등 특수비행을 전담하는 239특수비행대(‘블랙이글스’)가 내년 12월께 T-50 전투기 8대와 함께 원주로 이동한다.

1981년 원주에서 창설된 ‘블랙이글스’는 A-38 항공기를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으로 기종을 바꾸면서 지난 9월 광주 제1전비로 이동했다. ‘블랙이글스’로서는 이번 원주로의 이동 배치가 ‘원대복귀’인 셈이다.

광주지역 주민들은 ‘블랙이글스’의

‘귀향’ 소식에 설상하면서도 “훈련 기 소음이 크게 줄게 됐다”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높다.

‘블랙이글스’는 에어쇼 등을 위한 훈련이라는 특성상 100m 안팎의 저 공비행을 함으로써 주 1회 가량 이뤄진 훈련 때마다 부대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해왔다.

제1전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특수비행팀이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등 12개 밖에 되지 않는다”며 “‘블랙이글스’는 공군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소음 민원의 주원인이라는 점에서 주민 불편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주 시민단체 “교육감 후보 추대”

**‘시민후보’ 명칭 논란**

광주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내년 1월까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추대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교육감시민추대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후보 주천을 받아 자격 심사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시민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추대위는 이에 앞서 2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이홍길 전 5·18 재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120여명의 시민과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추대위원회를 구성했다.

추대위는 조만간 20명 이내로 상임 위원을 구성, 주천후보자 검증과 일정 등 구체적 활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내부 기준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반대, 민주적, 개혁적 교육 가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신념과 의지, 교육현장에서 검증된 전문성, 지도력 등을 미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시민후보’ 명칭 사용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시민단체 등이 나서 후보 추천을 하고 공보물 등에 ‘시민후보’ 명칭 등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대위 한 관계자는 “선거법 논란이 있어 후보를 추대만 할 뿐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을 것”

이라며 “주후 자발적 선거운동 참여는 개인에게 달렸다”고 해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롭 07시 25분

해진 17시 20분

달롭 19시 16분

달진 09시 18분

**아침 안개 조심하세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 주	맑은 뒤 흐림	1/13°C
목 포	맑은 뒤 흐림	2/11°C
여 수	맑은 뒤 흐림	5/11°C
완 도	맑은 뒤 흐림	3/12°C
구 레	맑은 뒤 흐림	-3/12°C
예 남	맑은 뒤 흐림	-2/12°C
장 흥	맑은 뒤 흐림	-1/12°C
고 흥	맑은 뒤 흐림	-1/13°C
순 천	맑은 뒤 흐림	-1/13°C
영 광	맑은 뒤 흐림	-1/11°C
전 도	맑은 뒤 흐림	1/12°C
전 주	맑은 뒤 흐림	0/10°C
남 원	맑은 뒤 흐림	-4/11°C
옥 산	맑은 뒤 흐림	7/10°C

**체감온도**

비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일비다 서~북서 0.5~1.5m

면비다 1.0~2.0m

남해 서부 일비다 북~북동 0.5~1.0m

면비다 2.0~3.0m

관심 낮음

낮음